월/요/광/장

이건철

호남의 자존심

조선조 호남은 전국 세곡(稅穀)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전국 최대의 식량 생산지로서 호남 없이는 국가 운영이 쉽지 않았다. 또 일제시대 목포항은 전국 3대 항구로서 식량 생산·운송의 거점이었으며, 국도 1호선(목포~신의주)과 2호선(목포~부산)의 기점이 일본과 가까운 부산을 제치고 목포로 설정된 것은 당시 호남의 위상을 나타낸 상징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호남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호남인은 경제력 저하, 정치·사회적 홀대 속에 살아오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국정기조로 지역균형발전을 설정했던 것은 호남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40여년동안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그 실적이 미흡했음에도 최근 사회적 시류를 보면, 국민적 관심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지역간 불균형, 계층간 빈부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동시에 해소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마침 계층간 격차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1% : 99%' 등의 복지논쟁으로 점화되고 있고, 기업간 격차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인 불균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균형이나 낙후라는 용어는 잊혀지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지역간 격차는 이슈화되지 못해 공약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악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호남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대권주자가 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수 호남인들 조차도 언제부터인가 호남인이 나서지 않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정치공학적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지 묻고 싶다.

국민통합의 첫째 조건인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FTA 등 개방시대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계 각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식량 위기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인이 대권주자로 나서면 안 된다는 정치공학적 논리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

이러한 정치공학에 빠져든 사이 호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얕잡아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작년 영남지역의 최대 현안이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되었던 동남권 신공항이 갑자기 호남까지 포함하는 남부권 신공항으로 재포장되어 등장했다.

수요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호남까지 포함시킨 남부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의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다. 호남에 유력한 대선주자만 있더라도 이렇게 무례한(?) 공약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남부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다.

또한 야권의 정치 쇄신을 명분으로 호남의 정치권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총선에 역량을 갖추고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출마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유독 호남만의 물갈이 폭이 큰 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호남만의 밀어붙이기식 물갈이는 호남을 희생양으로 삼아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 문학가 송광용님은 호남인을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이라 일컬었다. 호남은 경제개발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어 왔지만, 의(義)·예(藝)·미(味)의 3향이라는 역사·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삶을 이어 왔다.

더욱이 '지역의 팔자는 지역 스스로 고쳐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구적인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비중이 커져 가는 시점이다. 막연한 정치공학적 논리로 호남에서는 대권 주자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다가올 식량 위기시대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호남의 팔자를 스스로 고쳐나가기 위해 농도이자 소외의 땅 호남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를 반드시 내세우자. 한 때나마 국가의 중추지역이었던 호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역사에 이기고 고단한 삶을 이겨낸 사람들로 기록되자.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기아차 증산계획 더 이상 차질 안 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가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1일 "1월부터 1·2공장의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노사 협의 지연으로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공장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 인력 채용이 중요한데도 지난 4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아차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62만대 증산계획은 현재 50만대 생산 규모의 광주공장이 스포티지R과 쏘울 등 12만대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노사는 2공장 증설 등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벌였지만 인력 채용 등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

우리는 기아차가 62만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20%대였던 지역경제 기여도가 30% 중반으로 올라가고 지역 총수출액의 37%, 연간 매출 10조를 달성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한 바 있다. 고용창출은 물론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제품 소비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산 계획이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서로 합심하고 머리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노사가 공방만 벌이는 것은 생산량 저하와 소모적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사측은 추가 증산에 따른 인력 증원 문제 등을 노조와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4년간 생산량이 40% 증가했지만 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어떤 식이든 설득력이 없다. 노조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 증원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노사 모두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티지R과 쏘울의 수요 폭증이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원재료값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업소 물가

삼겹살을 비롯한 소고기,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업소의 물가가 원재료값 하락에도 불구,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8월 1인분(180g) 2600원에서 현재 1750원으로 32.7%나 떨어졌다. 닭고기는 1㎏ 1마리당 7130원에서 20.3%, 소고기는 등심 1등급 500g 기준 3만4900원에서 6.5% 하락했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식당 등 업소의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1월 4000원에서 8월 최고 1만2000원까지 치솟은데 이어 현재도 1만~1만1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급등했던 삼겹살값이 산지 돼지값을 반영, 안정세로 돌아섰음에도 식당 등 업소에서는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닭 튀김은 한 마리 기준 지난해 1만2000원, 현재 1만3000~1만400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다. 소고기도 2년 전부터 계속 올라 등심 1인분(150g)에 2만5000원대라고 한다.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물가가 한번 오르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청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격 하락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물가 조사를 하는 자체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막고 원재료값과 연동을 유도하라는 게 아닌가.

업소의 음식물가를 잡는 것은 어느 물가에 앞서 중요하다.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물가는 여타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다.

법조칼럼

범복의 무게와 판사의 고민

안금선

얼마 전 모 음식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최상위권에 랭크된 적이 있었다. 필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일행들도 가끔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기에 관심 있게 봤더니 음식점 종업원이 임신부를 폭행하였다는 임신부 측 주장이 그대로 기사화되면서 해당 음식점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반론이 제기됐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자료 역시 일부 임신부 주장과 어긋났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 아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졌다는 이른바 '국물녀 사건'이 크게 이슈화됐으며, 이 사건 또한 국물녀로 비난받은 당사자의 해명과 CCTV 영상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가 피해자 측 주장과는 꽤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물론 이는 모두 언론 보도에 근거한 내용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알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송사를 책임지는 판사로 근무한 지 이제 고작 만 5년이 된 필자로서도 위와 유사한 사례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원고와 피고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조금씩 거짓말을 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다 보면 같은 사건의 양 당사자가 완전히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CCTV 녹화자료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 항상 밝혀진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본다 하더라도 말만 듣고는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기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대부분의 판사가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 주로 문서 등 객관적 증거 위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특히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쪽 당사자의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사건의 핵심에서 다소 비껴나간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에 기초해 논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작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는 소외되다 보니 오해와 억울함만 쌓이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권위적이고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판사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 성실하게 사건 기록을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판사로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이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사실 모든 사건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실을 말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패소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평생 무수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주어진 증거자료 안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끌어내어 올바른 판단을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는 억울한 당사자를 위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인 법원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돈을 주어야 할 사람이 돈을 주라는 법리상 당연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해결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겪었던 어려움 등에 대하여 판사 앞에서 토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면, 무언가 대단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가끔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귀 기울임'에 감사한 마음에서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은 법리 적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떤 직업이라도 다 나름의 어려움은 있는 것이겠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두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하는 판사 법복의 무게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어떤 재판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사의 고민은 끝날 수 없는 것 같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판사〉

기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골목상권'을 살리자

문금주

예로부터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다. 그 아무리 기세를 떨치던 추위도 양력 3월이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물러가게 된다는 뜻으로, 한겨울 동안 땅속에서 숨죽여 왔던 생명들이 움을 틔우는 바야흐로 온 누리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지역경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를 기록하여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의 안정된 물가를 보였다. 이는 7대 도시 중에서도 인천의 2.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여서 우리 시의 물가안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월의 수출액은 국가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10억8000만$을 기록하여 부산을 추월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순조로운 성장세가 전망되어 지난 연말 사상 최대의 실적인 133억4000만$ 달성을 또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듯 최근 지역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특히 실물경제의 경우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나 살림살이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한 골목상권의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 5기의 정책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시는 영세 상인들의 자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함으로써 영세 도·소매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이자의 이차보전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2~3% 낮은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0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고, 전국 각 지자체의 SSM 규제를 선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08시까지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무토록 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 그리고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였다.

아울러 골목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대표와 관련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자금지원 확대 방안, 시설 현대화 방안 그리고 골목상권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 현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지역경제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서민경제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네 수퍼와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상권이 되살아나야 한다.

이제 우리 중소상인들도 선진 마케팅기법을 도입하고 쇼핑환경도 개선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민들 또한 동네 이웃인 작은 수퍼와 전통시장을 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의 작은 실천이 지역경제의 진정한 봄을 앞당길 수 있다.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無等鼓

고로쇠

산수유와 매화, 복수초 등 봄소식을 전하는 꽃과 나무들이 많지만 남도의 봄을 부르는 전령으로 고로쇠를 빼놓을 수 없다. 입춘과 우수가 지나면 겨우내 하얀 침묵에 잠들었던 지리산과 백운산 골짜기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분주해진다.

해발 500~1,0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고로쇠나무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로운 물이라 하여 골리수(骨利樹)라고 불렸다. 완벽한 필터인 나무에서 채취되는 만큼 맑고 투명하며, 바닷바람이 닿지 않는 지리산 기슭의 것을 최고로 쳤다.

고로쇠에 관한 전설 또한 지리산과 얽힌 게 많다. 반야봉에 살던 반달곰이 포수의 화살을 맞고 산신령의 계시에 따라 고로쇠 수액을 마시고 깨끗이 나았다거나, 기력이 쇠약해진 변강쇠가 뱀사골 고로쇠물을 마시고 500근이나 되는 돌을 들었다하여 '들돌골'(擧石谷)이라는 지명도 전한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군사들이 전투 중 갈증에 허덕이다가 우연히 화살이 꽂힌 나무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곳도 지리산이다.

고로쇠 약수 채취에는 드릴로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는 천공법을 사용한다. 산림청은 지나친 채취로 인한 수목 피해를 막기 위해 2m 이내의 높이에 지름 0.8㎝ 이내, 목질부로부터 1.5㎝ 이내에 구멍을 뚫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남에선 보통 1월 말에 시작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채취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한파와 잦은 눈으로 보름가량 늦어졌다. 지리산과 조계산, 백운산, 추월산, 팔영산, 모후산, 백암산 등에 자라는 13만여그루에서 160만여ℓ의 수액을 채취, 47억 원의 소득이 기대된다.

고로쇠 수액은 칼슘을 비롯해 마그네슘, 망간, 철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다량 함유된 천연 음료수다. 최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고혈압과 비만 억제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게다가 잎은 지혈제로, 뿌리와 그 껍질은 관절통과 골절 치료에 쓰인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